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김 양 중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kyj0509@cni.re.kr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1.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중요성
2.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3. 자동차 대체부품 인식조사 및 시사점
4.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요약

-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4.10.31.)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의 시장진출과 투자가 미흡
 - ※ 자동차 대체부품은 완성차에 처음 장착된 부품(순정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함
- ◀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되면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완성차 업체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자기 브랜드를 통한 시장판매와 수출이 확대될 것이며, 소비자의 차 수리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임
- ◀ 또한 충남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대체부품시장의 메카가 된다면, 관련 기업의 유치는 물론 차 수리 서비스업 등 내수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 정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함
- ◀ 충남 또한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중소 자동차부품기업 지원방안과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함
 -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통해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제품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대체부품 기업을 위한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우수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함
 - 도내 대체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를 유도하고, 차 수리 서비스시장의 우수 인력양성에도 노력해야 함

01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중요성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4.10.31)으로 인증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이 새롭게 열림
 - 자동차 대체부품은 완성차에 처음 장착된 부품(순정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함
- 그동안 자동차 수리시 OEM¹⁾ 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²⁾를 통해 대체부품도 품질을 보장받게 되었음
- 이제 자동차부품기업이 OEM이 아닌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순정과 동일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짐
 -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과 품질이 인증된 자동차 대체부품 공급의 확대 기대
 - 자동차부품시장의 새로운 변화는 신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자와 차 수리 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1)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 상표 부착품으로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임

2)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인증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함으로써 대체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02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1. 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배경

-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완성차업체에서 공급한 OEM 부품을 대부분 사용해 왔음
 - 특히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리시 고가의 자체부품이 주로 사용되어 수리비 및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함
 - 국산자동차의 경우에도 완성차업체의 OEM 부품이 주로 사용되어 소비자 수리부담이 가중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기브랜드 개발 위축 등이 문제로 지적
- 이에 가격은 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비슷한 자동차 대체부품이 시장에서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대체부품 인증품목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면서도 자동차 수리에는 많이 사용되고 수리비는 높은 외장부품 위주였으나, 소모성부품, 기능성부품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음

2.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한계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2017년 현재 국내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에 묶여 수입차 부품에만 적용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OEM부품 중심의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이 국산차의 대체부품을 생산·판매하고자 할 경우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는 불가능한 실정

03

자동차 대체부품 인식조사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개요

-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충남의 소비자와 차 수리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소비자 표본은 지역별로 랜덤 추출된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차 수리 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지역별로 랜덤 추출된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외제차 소유자의 경우는 별도 FGI를 진행하였음

2.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기업에 주는 시사점

구 분	내 용
주요고객 선정	- 5년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수입차의 경우 3년)
주요 육성품목	- 시장초기에는 등화부품, 기능성부품, 소모성부품 위주로 시장에 진출하고 이후 범퍼와 차체 등 진출이 필요
제품의 경쟁력 강화방안	- 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

-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의 주요 고객 타겟팅은 5년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
 - 5년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의 92.5%가 자동차 대체부품을 활용하겠다고 응답
 - 아직까지 우리나라 소비자는 순정부품을 선호하고, 특히 새 차인 경우에는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수입차의 경우는 수리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3년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시장초기에는 범퍼, 차체보다는 등화부품, 기능성부품, 소모성부품 위주로 시장에 진출하고 이후 범퍼와 차체 등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대체부품으로 등화부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능성부품 21.4%, 소모성부품 18.9% 순으로 응답
 - 시장 초기에는 기능성부품(쇼바, 점화플러그, 브레이크, 와이퍼 등), 소모성부품(에어필터, 오일필터, 엔진오일, 부동액, 배터리 등)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품개발과 생산이 기업 판로에 유리
 - 특히 수입차 소비자의 경우에는 안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기능성 부품보다는 소모성부품으로 초기시장을 공략할 필요성 있음
- 순정부품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
 -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는 이유로 소비자의 60.0%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수리센터의 권유(32.7%), 순정부품을 구하기 어려워(7.3%)라고 응답
 - 기업입장에서 원가절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

2) 충남에 주는 시사점

구분	내 용
홍보 강화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기술 지원	가격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규제 완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위한 노력 필요

- 아직까지 대체부품 및 대체부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시행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37.3%,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9.3%로 나타나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수입차 소유자의 경우 인지도가 매우 낮아, 수입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

- 또한 대체부품에 대해 재생부품, 중고부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나타남
 - 재생이미지가 42.9%, 중고이미지가 28.6%, 가짜이미지가 8.7%로 나타남
 - 순정부품을 생산하는 동일기업에서 대체부품도 생산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지시켜야 함
 - 또한 대체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순정부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

-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소비자는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순정가격의 65.9%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성능은 76.6%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의 구축이 필요
 - 또한 대체부품도 충남의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남의 지역산업발전계획에 포함시켜 R&D지원, 경영컨설팅, 인재육성 등 산업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함

- 현재까지 국산 자동차의 경우 디자인 보호법에 묶여 인증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지만, 대부분 자동차 수리 서비스업 종사자와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소비자의 96.9%가 디자인보호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정부의 적극적인 디자인 보호법 개선책 마련 등 새로운 시장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

04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 앞서 언급한 소비자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가 추진해야 하는 산업육성정책의 3대 방향과 9대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표 1〉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정책방향 및 전략

정책 방향	1.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의 저변 확대 2. 중소자동차부품기업 지원방안 마련 3.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기반 마련	
추진 전략	정책방향 1	○ 전략1: 자동차 대체부품 홍보 및 인식개선 ○ 전략2: 자동차 대체부품 정보의 투명성 확보 ○ 전략3: 보험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정책방향 2	○ 전략1: 수출거래선 발굴 ○ 전략2: 스타 대체부품기업 육성 ○ 전략3: 대체부품기업 네트워크 구축
	정책방향 3	○ 전략1: 산업집적을 위한 대체부품 클러스터 구축 ○ 전략2: 차 수리 서비스시장 인력양성 ○ 전략3: 규제철폐 건의

1.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의 저변 확대

- 충남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노력임
 - 대체부품은 순정부품과 성능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인증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 소비자가 대체부품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순정부품과 비교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임
 - 분산되어 있는 대체부품 인증·시험 기능을 한곳에서 수행하고, 인증 대체부품을 활용하는 차 수리 센터의 경우 충남 차원의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함
- 또한 대체부품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시장과 연계가 중요
 - 자동차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대신 대체부품 사용한다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체계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고가의 OEM 신부품으로 교환하고 있어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출
 - 따라서 노후된 차량은 외장부품 교환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자동차부품기업 지원방안 마련

- 아직까지 국내 대체부품시장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이 대체 부품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따라서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EU, 중국 등 대체부품수요가 충분한 국가를 대상으로 바이어를 발굴해야 함
 - 또한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과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사업’ 등을 통해 해외 대체부품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해외 대체부품시장조사를 통해 수출거래선과 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면, 바이어 구매 의향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부품기업을 육성해야 함
 - 충남이나 타시도의 자동차부품기업이 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
 - 자동차부품산업육성에 투입되는 일부 예산을 대체부품산업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성도 있음

- 분야별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체부품 기업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
 - 충남은 대체부품시장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제반비용을 지원
 - 대체부품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기업인들과 전문가가 모여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기반마련

- 충남이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체부품 전문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충남 내포지역은 인근에 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음
 - 산업단지가 구축되고, 지원시설인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가 설립된다면, 이는 충남 대체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시설이 될 것임
- 대체부품산업은 차 수리 서비스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
 - 수입차의 경우 차 수리가 국산차만큼 쉽지 않고 관련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수리비가 매우 비쌈
 - 따라서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수입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을 통과한 사람에게 대체부품 자격증을 발부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자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
 - 자동차부품제조업체가 국산차의 대체부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할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묶여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
 - 따라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권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 부품제조업체가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어려움 없이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김 양 중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1-840-1163, kyj0509@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전략과제(2017년)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전망 및 육성방안' 을 요약해 재정리한 것임

- 곽주영, 2010. “부품시장의 전망과 국내자동차부품기업의 중국진출전략”, 국제통상연구
- 김범준, 2014. “자동차 부품산업의 M&A 증가,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관계 변화의 전조”, LG경제연구원
- 김양중, 2016.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 방안”, 충남연구원
- 김지영 외, 2017.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김찬준 외, 2016.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재생방안 마련 용역”, 산업연구원